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2023년 8월 28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516천 km ² 	인구 2.1억 명 (2022)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주의 
GDP 20,812억 달러 (2023 ^f) 	1인당GDP 9,673달러 (2023 ^f) 	통화단위 Real (R\$) 	환율(U\$기준) 4.93 (2023 ^f) 

- 브라질은 남미 대륙 중동부에 위치(남미 대륙의 47% 차지)하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 7위의 인구 규모 및 세계 10위의 GDP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철광석, 원유, 농축산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량을 기반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은 경제 재건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회복을 정책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으며,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세제 개혁 추진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립을 도모코자 함.
- 룰라 행정부는 남미국가연합(UNASUR),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공동체(CELAC) 등 지역 협의체에 복귀하고 남미 12개국 정상회의, 아마존 협력기구(ACTO)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중남미 지역 내 리더십을 회복코자 노력 중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9. 10. 31. 수교 (북한과는 2001. 3. 9.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3), 문화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약('91), 과학기술협력협정('92), 항공협정('95), 관광협력협정('97), 범죄인인도조약('02), 사증면제협정('02),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05), 형사사법공조조약('06), 국방협력협정('08), 사회보장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3,943,638	4,666,440	4,975,562	반도체,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수 입	4,237,366	6,621,717	7,930,236	식물성물질, 철광, 육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3.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315건, 9,962,49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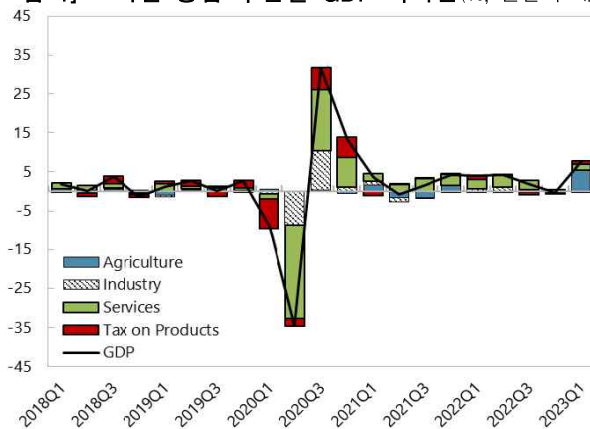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1.2	-3.3	5.0	2.9	2.1
소비자물가상승률	3.7	3.2	8.3	9.3	5.0
재정수지/GDP	-5.8	-13.3	-4.3	-4.6	-8.8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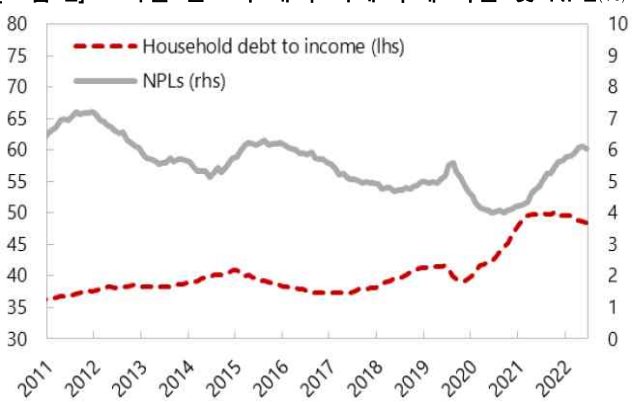
농업 부문의 호황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기 침체요인 상존

- 2022년 브라질 경제는 상반기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Auxilio Brasil)을 통한 민간소비 성장 및 실업률 감소,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이슈에 기인한 원자재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로 기대 이상의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구매력 약화, 10월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제한되며 전년 대비 저조한 성장률(2.9%)을 기록하였음.
- 2023년 1분기에는 농업 부문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로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물가상승률 안정 추세에 따라 2023년 8월 기준금리가 0.5%p 인하되었으나, 가계부채 증가 및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약화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한편, IMF는 2023년 7월 브라질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의 기대 이상의 성장세에 기반하여, 브라질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0.8%)에서 2.1%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하였음.
- 2022~23년 우호적인 기후조건에 기인한 대두 및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 증가로 농업 부문이 전분기 대비 21.6% 성장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한편, 대두 수확기 종료에 따라 경제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2.0% 감소하는 등 하반기에는 농업 부문의 견인효과가 상반기보다 약해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브라질 공급 부문별 GDP 기여율(%), 전분기 대비 [그림 2] 브라질 연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및 NPL(%)



자료: IBGE, CNI, Haver Analytics, IMF



자료: BCB, IBGE, Ipea, Haver Analytics, IMF

국내경제

2023년 8월, 브라질 중앙은행 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

- 202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식량 가격 및 연료비가 급등함과 동시에 서비스 부문 물가가 정점에 달하며 상반기 평균 11.3%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에 따른 연료 및 전력비용 하락 등으로 하반기에는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띄었으나,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9.3%를 기록하며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75%±2%)를 크게 상회함.
- 2023년 상반기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농업 호황에 따른 식품 가격 하락, 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및 해외자본 유입 증가에 따라 해알화가 강세를 보이며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7월 중순 기준 12개월 물가상승률은 3.19%를 기록하며 중앙은행의 목표치 내에 안착함. 브라질 통화정책위원회는 비우호적인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연말에 물가 상승을 예측하며 202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4.9%로 전망함.
- 단, 농산물, 원자재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core inflation)은 2023년 6월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BCB는 2021년 3월(2.00%)부터 2022년 8월(13.75%)까지 기준금리를 11차례에 걸쳐 11.25%p 인상하며 선진국 대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한 뒤, 2023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함. 2023년 상반기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BCB는 8월 회의에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13.25%로 0.5%p 인하하며 긴축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함.
- BCB는 지난 8월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낮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12.50%에서 11.7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수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
- EIU는 중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안정과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EIU) : ('23)4.8 → ('24)4.0 → ('25)3.8 → ('26)3.8 → ('26)3.7

[그림 3] 브라질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추이, 인플레이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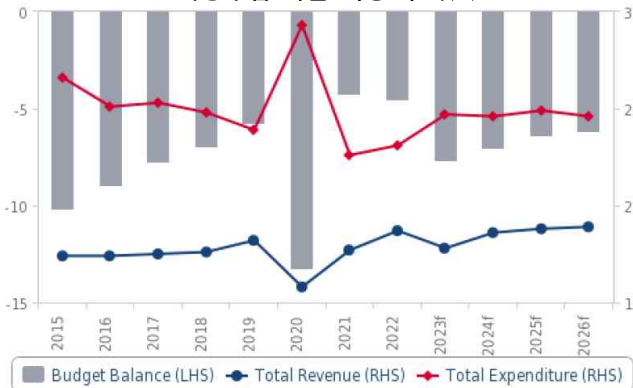
자료: IBGE, BCB, Reuters

국내경제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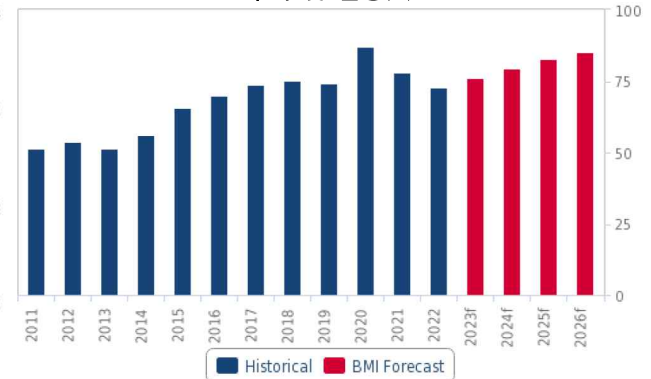
- 브라질의 재정수지는 사회보장 지출 및 연금 지급 등 고정적인 대규모 정부지출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음. 2022년에는 고유가와 경제 회복 기조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상쇄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6%로 전년(-4.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2023년에는 제한된 경제성장 및 석유 수출액 감소로 세입이 제한되었으나 새로 취임한 룰라 행정부의 빈곤층 지원 및 공공투자 증액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동 비중이 -8.8%로 전년 대비 대폭 악화될 전망이다.
- 룰라 대통령은 2023년 3월 약 7년 만에 정부지출의 연간 증가율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의 0.6~2.5% 이내, 정부지출을 재정수입 증가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재정준칙을 공개함. 이는 정부지출이 경기상황에 지나치게 연동되는 것을 방지하며 룰라 행정부의 선심성 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일부 해소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
- 새로운 재정준칙은 5월 하원, 6월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로 연간 인플레이션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하원 표결을 거친 뒤 최종 승인될 예정임.
- 새 재정준칙은 지출한도 외에도 2024년 기초재정수지 적자(Primary deficit)를 '0(zero)'으로 만든 뒤, 2025년에는 재정수지 흑자를 GDP 대비 0.5%, 2026년에는 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브라질은 1980~90년대 재정적자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1999년부터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운용해 왔음. 2017년부터 재정준칙에 따라 실질 재정지출을 동결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을 위반하는 조치를 수시로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는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조세행정 간소화, 배당소득세 부과, 기업 대상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의 조세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그림 4] 브라질 GDP 대비 재정수지 및 재정수입·지출 비중 추이(%)



자료: National Treasury, Fitch Solutions

[그림 5] 브라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 및 전망(%)



자료: BCB, BMI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68,022	-28,208	-46,358	-56,997	-41,986
경상수지/GDP	-3.6	-1.9	-2.8	-3.0	-2.0
상 품 수 지	26,547	32,370	36,363	44,153	59,561
상 품 수 출	225,800	210,707	284,012	340,328	337,711
상 품 수 입	199,253	178,337	247,648	296,175	278,150
외 환 보 유 액	346,490	342,707	330,865	293,853	293,682
총 외 채	675,789	639,308	670,286	697,384	732,145
총외채잔액/GDP	36.1	43.3	40.7	36.2	35.2
D.S.R.	38.4	46.2	30.2	22.2	23.1

자료: IMF, EIU

농업 부문 호황 및 수입물가 하락으로 무역수지 흑자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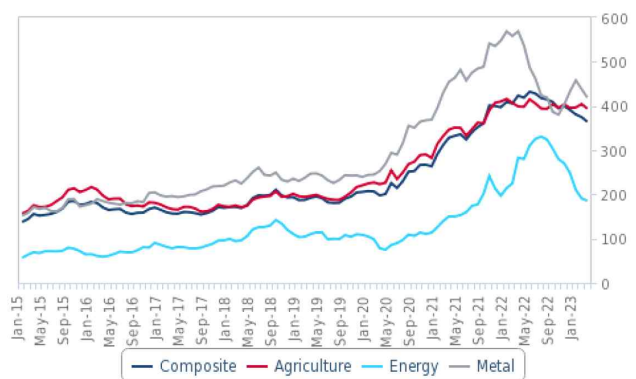
- 2022년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철강, 원유, 농산물 등의 수출가격 상승 및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브라질 내 다국적 기업의 해외송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수지가 적자를 보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0%로 전년(-2.8%) 대비 소폭 악화됨.
- 2023년에는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호황에 따른 대두 수출량 증가와 수입물가의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운송 서비스 수지 개선으로 6월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기대 이하의 경제지표로 인해 하반기 수출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6] 브라질 상품 수출·수입액 및 상품수지 추이 (백만 달러)



자료: EIU

[그림 7] 주요 수출품목별 가격 변동 추이 (원자재 가격 지수)



자료: BCB, Macrobond, BMI, Fitch solutions

대외거래

공격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외자 유입으로 헤알화 강세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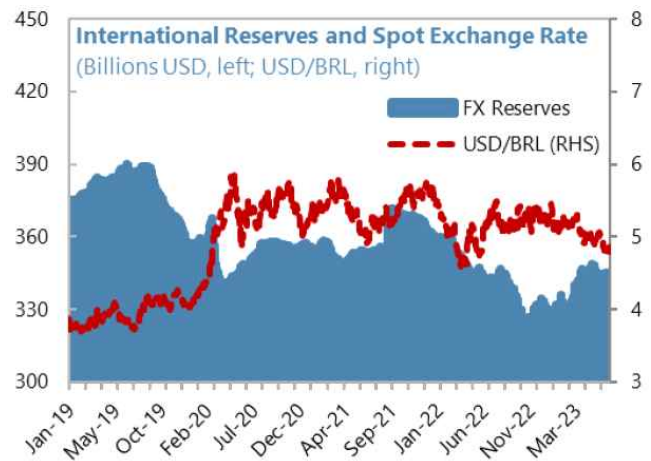
- 브라질은 2022년 말 기준 GDP의 약 15%에 달하는 양호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2022년에는 원자재 시장 활황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자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다국적 기업의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전년 말(3,307억 달러) 대비 3.6% 감소한 2,939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7.4개월분)를 기록함.
- 2022년 대선 결과 불복 리스크 해소, 룰라 행정부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새 재정준칙 수립 조치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이며,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축소됨에 따라 2023년 외환보유액은 2,937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7.7개월분)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이자율로 인해 외국인 금융자본 유입이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 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 6월 말 기준 미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4.82로 전년 동기(5.24) 대비 헤알화 가치가 9% 평가절상되며 강세를 보임.
- 한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며 공격적인 긴축정책 기조를 완화함에 따라 브라질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자본 유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나, 새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리스크 감소, 대중(對中) 무역 시 위안-헤알화 사용 합의 등으로 헤알화 강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연말 헤알화 환율을 4.75헤알로 예상함.

[그림 8]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 GDP 대비 비중)



자료: BCB, EIU

[그림 9] 브라질 외환보유액 및 USD/BRL 환율 추이
(십억 달러, 왼쪽 축 / USD/BRL, 오른쪽 축)



자료: BCB, Bloomberg, IMF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확보

- 2022년 말 브라질의 총외채잔액은 전년 말(6,703억 달러)보다 증가한 6,97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활성화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6.2%로 전년 말(40.7%) 대비 감소하였음. 아울러 에너지 수출가격 상승 및 농업 부문 호황에 따른 총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2022년 말 D.S.R.은 22.2%로 전년 말(30.2%) 대비 8%p 감소하였음.
- 2023년에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D.S.R.은 23.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23년 말 총외채잔액은 7,32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5.2%로 전년(36.2%)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구조적취약성

광물, 곡물 등 원자재 산업으로의 쏠림 현상 심화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녔으며, 코로나19 회복,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원자재 수요 증가 및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브라질의 원자재 산업이 호황을 이룬 반면, 제조업 성장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며 원자재 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됨.
- 브라질의 제조업 쇠퇴에는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높은 세금, 열악한 인프라,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높은 원가와 낮은 생산성이유를 이유로 Ford, Sony, Mercedes-Benz 등 글로벌 기업이 브라질 내 생산시설 운영을 일부 중단 또는 폐쇄함.
-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1990년대 초반 25%에서 2022년 13%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70%가 넘었던 수출액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22년 5% 미만으로 대폭 감소함. 전문가들은 제조업이 몰락하고 브라질이 원자재 의존형 국가로 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브라질 산업연구원(IEDI)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발달에 따른 탈제조업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브라질의 경우 제조업 쇠퇴 속도가 빠른 편이며 노동자들의 평균 생산성과 소득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기 탈산업화'의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고 지적함.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저하

- 높은 조세부담률과 만연한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노무관리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브라질의 높은 세율은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브라질의 GDP 대비 조세부담율은 31.6%로 중남미 평균 21.9%를 크게 상회함. 또한 연방·주·시별로 세금 관할 주체가 다르고, 세액 산정방식도 복잡함.
- 브라질의 관료주의는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 긴 허가 취득 기간 등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대표되며, 이는 해외 기업의 브라질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EIU의 2023~27년 기업환경 분석 및 전망에서 브라질의 기업환경은 6.20점으로 세계 82개국 중 53위를 차지하였으며, 조세 부문에서는 4.7점으로 최하위권인 77위에 그침.
- 정부는 세제개혁 추진을 통한 세제 간소화, 스마트 시티 및 전자정부 도입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브라질 코스트를 혁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높으며, 철도망이 발달되지 않아 도로 운송이 전체 물류의 60% 이상을 담당함. 또한 주요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남동부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 육상을 통한 내륙 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총 도로 길이 170만 km 중에서 포장된 도로의 길이는 21.3만 km(12.5%)이고, 철도 길이는 29,180km에 불과한 데다 이 중 3분의 1이 사용 불가능 상태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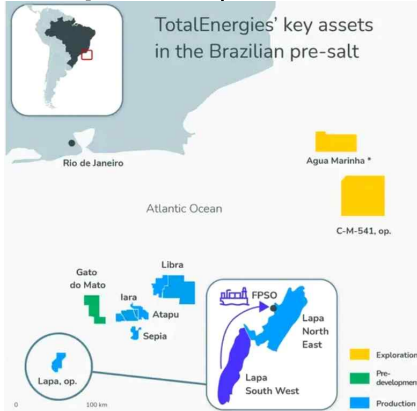
적극적인 탐사·시추활동을 통한 원유 매장·생산량 증가세 및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 브라질 광물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청(ANP)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300만 배럴로 세계 9위 수준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2022년 기준 149억 배럴로 세계 16위 수준임. 2022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1.4억 입방미터를 기록하며 1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함.
- 룰라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부의 석유 산업 개입 및 관련 세금 인상 등이 예상되었으나,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세입 증대를 위해 2023년 연간 석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발표했으며, 2023년 4월에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일평균 310만 배럴을 생산함. ANP는 브라질 내 대규모 매장량 및 활발한 탐사·시추 활동에 힘입어 브라질이 2029년까지 일평균 540만 배럴을 생산하며 세계 4위의 산유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2023년 1월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은 브라질 심해 유전 개발사업에 대해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FID)을 승인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부터 일일 2.5~6만 배럴을 생산할 전망이다.
- 미 지질조사국(USGS)의 2023 광물자원 개요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광기업 중 하나인 Vale를 보유한 브라질은 전 세계 철광석 생산 2위, 보크사이트 생산 4위, 망간 생산 7위 및 니켈 생산 9위 국가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생산하고 있음.

우수한 농업환경 및 대규모 내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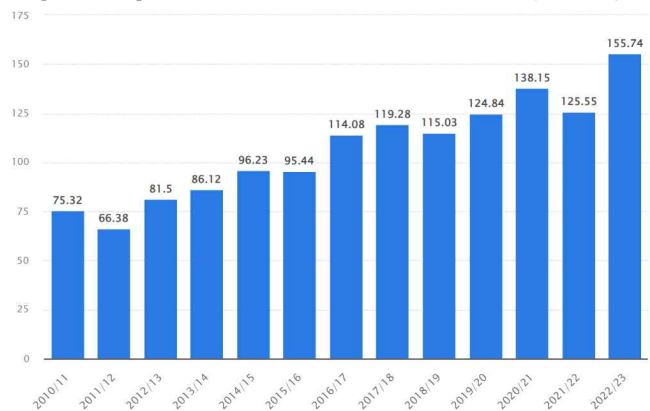
- 브라질은 대두 및 옥수수를 중심으로 세계 4위의 곡물 생산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으로, 브라질 전체 수출 중 농산물의 비중이 50%에 육박함. 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며 농산물 생산량이 2000년 이후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임.
- 특히 대두는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2022~23년에 우호적인 기후조건에 힘입어 사상 최고 수확량인 1억 5천만 톤을 수확하였으며, 2023~24년에도 생산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약 2억 6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은 세계 5위(남미 1위) 면적인 851.6만 km²의 국토에 세계 6위 인구 규모인 2.1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어 중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국가로 손꼽히고 있음. 또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인접국들과 인구 약 3억 명의 거대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10] 브라질 Lapa 심해 유전 위치



자료: Total Energies

[그림 11] 브라질 연도별 대두 생산량 추이(백만 톤)



자료: ANP, Statista

정책성과

세제 간소화 개혁 추진을 통한 세수 확보 및 경영환경 개선 전망

- 2023년 7월 브라질 하원은 세제 간소화 개혁안을 통과시킴. 본 개혁안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걷어들이던 세금을 이중 부가가치세(VAT)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함. 특히 과세 대상을 생산지 과세(origin-based tax)에서 소비지 과세(destination-based tax)로 바꿈에 따라 지방정부 간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한 재정경쟁을 줄이고자 함.
- IMF는 동 세제개혁 도입을 통해 정부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GDP의 1%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고 전망함. 한편, 금번 세제개혁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논쟁이 많은 요소인 소득세 개혁 내용은 제외되었으나, 룰라 행정부는 올 하반기 중 소득세 관련 별도의 개혁을 발표할 예정임.
- 브라질의 복잡한 세금 체계는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었으며, EIU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이 세금 의무 준수 및 납부에 연간 약 1,500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라틴아메리카 연 평균 316시간) 세금제도 간소화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비용 감소 등 브라질 내 기업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기적으로 브라질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EIU는 7월에 하원을 통과한 동 법안이 룰라 대통령의 상원 내 영향력에 기반하여 하반기 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기본 식량 바스켓에 속하는 농산물은 면세 대상이 됨에 따라 농업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상대적으로 기존에 면세율이 높았던 서비스 부문(특히 전자 상거래)의 평균 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동 법안에는 자동차보유세(IPVA) 부과 대상 확대, 부동산소유세(재산세, IPTU) 수정도 포함됨. 룰라 행정부는 세제개혁에 따른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25%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평균인 16%를 크게 상회함.

[표 1] 브라질 세제 간소화 개혁안

현재 세금 시스템		세제 간소화 개혁안
[PIS] 기업의 매출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사회기여세	⇒	[CBS] 국가 단위의 부가가치세(VAT)로 통합
[COFINS] 기업의 수익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IPI] 공산품 및 수입공산품에 부과되는 연방세		
[ICMS] 상품·서비스에 부과되는 주(州) 유통세	⇒	[IBS]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부가가치세(VAT)로 통합
[ISS] 서비스에 부과되는 시(市) 서비스세		

정치안정

3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개혁 추진 중

- 2022년 10월 30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50.8%의 득표율로 당선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함. 룰라 대통령은 경제 재건을 통한 빈곤 퇴치, 아마존 보호를 통한 국제 사회 위상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원자재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이전 재임기간과는 다른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은 최근 5년 간 평균 1.3%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였고, 룰라 대통령의 임기 말(2010년) 63%였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2년 85%를 넘어섰으며, 당시 10% 후반이었던 빈곤율이 최근 28.9%까지 증가하는 등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제 성장동력 및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며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룰라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된 브라질 사회를 통합하고 빈곤 감축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지님. 2022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진보·보수 진영 간 충돌이 잇따랐으며, 1차 투표에서 5.2%p, 결선 투표에서 1.8%p의 간발의 차이로 당선됨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 운동을 빙자한 폭동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옴.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보우소나루 소속의 자유당(LP)이 하원에서 98석을 확보해 제1당에 오르는 등 극우 및 보수 정당이 총 하원의 48%를 차지하였으나, 룰라 소속의 노동자당(PT)은 67석 확보에 그쳐 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됨.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룰라가 지지한 의원들이 상·하원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 재정준칙 수립, 세제개혁 추진에 동력을 얻음.

브라질 연방선거법원, 권력 남용 혐의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공직 진출 금지 명령

- 2023년 1월 8일, 룰라 대통령 취임 1주일 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3천 여명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 시설이 파괴되기도 하였으며, 폭력사용,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1,000명 이상이 구속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하여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외에도 인접국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정상들은 브라질의 폭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폭동 이후 브라질 대법원은 반민주 행동 선동 및 기획 혐의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승인함.
- 대선 불복, 권력 남용, 쿠데타 모의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심사하던 브라질 연방선거법원(TSE, Tribunal Superior Eleitoral)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 환경을 퇴보시키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언급하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8년 간 공직 진출 금지 처분을 내림.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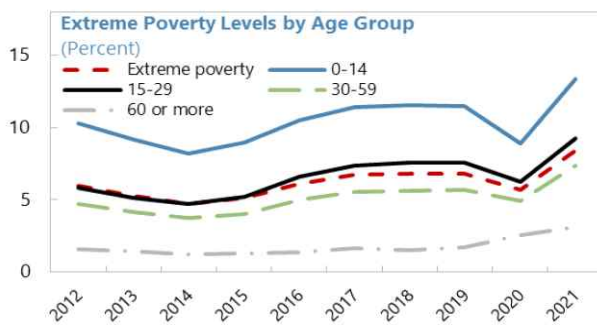
코로나19 기점으로 절대빈곤율 및 빈부격차 심화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임.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빈곤율 및 절대빈곤율이 급증함. 최근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빈곤율 및 지니계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을 촉발 및 잠재성장률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에 따르면, 2022년 말 대선을 앞둔 전 정부의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확대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실업률 감소의 영향으로 2021년 0.544를 기록한 지니계수*가 2022년 0.518로 개선되었음.
 - * 지니계수(Gini Index) :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
- 룰라 행정부 인수위원회는 2022년 말 기준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브라질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3,300만 명이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함에 따라 빈곤 퇴치가 최우선 과제를 밝힘.
- 한편, 룰라 행정부는 202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재정지출 한도가 약 1,500억 헤알(한화 약 35조)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중 700억 헤알은 전 정권의 소득 이전 프로그램인 '아우실리우 브라질 (Auxilio Brasil)'의 지급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밝힘. 한편, 소득 이전 프로그램 이름은 지난 룰라 행정부 시 사용했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로 변경됨.

높은 범죄율로 치안 불안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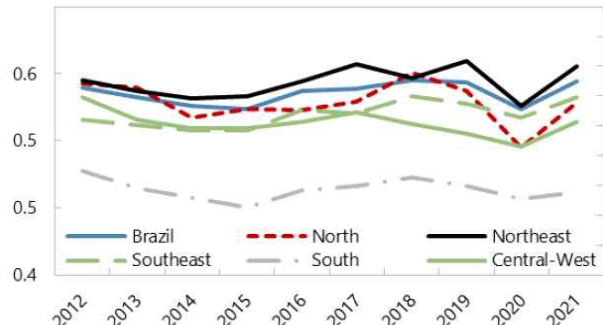
- World Population Review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범죄율*은 2023년 67.49로 세계 9위임. '파벨라'로 불리는 빈민가를 중심으로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이 자리하고 있으며 범죄조직 간 충돌,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하루 평균 9~20차례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음.
- * 범죄율 = (신고 건수 ÷ 총인구) × 100,000
- 한편, 전 정권에서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며 일반인 총기 소유가 늘어난 것도 범죄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에 따라 룰라 대통령은 총기 소지·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모든 총기 소유자의 총기를 등록할 것을 명령하여 치안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2] 브라질 연령 그룹별 절대 빈곤율(%)



자료: BCB, IBGE, IMF

[그림 13] 브라질 지역별 지니 계수



자료: BCB, IBGE, IMF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3. 4월)는 ESG 요소가 브라질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년 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국토 및 높은 경제다각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산업인 석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전환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양호한 인구구조와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으나, 높은 소득불평등과 기초생활 서비스 제공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됨.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세계은행(WB)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은 정책 효과성 및 부패 통제의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법 체계, 통화정책 체계 등의 제도적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아마존 기금 재건 및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회복 추진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아마존 삼림 벌채 확대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OECD 가입 및 EU와의 무역협정 과정에서 차질을 빚음. 룰라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11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7)에 참석하여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콩고와 '열대림 보호 협정'을 체결하며 국제적 지원을 요청할 것을 표명함.
-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목적으로 창설된 '아마존 기금'은 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따라 2019년 기금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룰라 대통령의 당선 직후 대법원이 해당 기금 운용 재개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이 기부를 재개하여 19.6억 달러 규모로 조성됨.
- 2023년 2월 브라질-미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양국 간 환경 부문 협력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미국이 아마존 기금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할 것임을 밝힘.
-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2023년 7월 아마존 삼림 파괴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며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전문가들은 건기가 시작되며 통상 삼림 벌채면적이 증가하는 6~7월의 벌채면적이 감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양자외교에 주력하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달리 룰라 행정부는 BRICS, MERCOSUR(남미공동시장), UNASUR(남미국가연합) 중남미·개도국 간 연대를 강조함. 2023년 8월 아마존 협력기구(ACTO)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7월 MERCOSUR 의장국, 2024년 G20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리더로서의 브라질의 대외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함.
- 룰라 행정부의 이전 집권 기간과 달리 BRICS 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갈등을 보임에 따라 BRICS를 통한 외교에 한계가 있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임기 동안 MERCOSUR 및 UNASUR 회원국 간 결속력이 약해짐에 따라 다자기구의 위상이 약화된 상태임.

중국과의 무역에서 헤알화 또는 위안화 결제 합의

- 2023년 3월 브라질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상호 무역 및 금융거래에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고 브라질 헤알화 또는 중국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함. 양국은 이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및 무역·투자 촉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이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라질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중국은 브라질 외에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도 BRICS 통화 창설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동의함.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3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대 브라질 여신잔액 254.2억 달러(단기 50.9억 달러, 중장기 203.4억 달러) 중 연체액은 6.0억 달러로 2.3%에 불과하며, 전체 외채구조에서 중장기 외채의 비중이 80.0%로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1961~92년 파리클럽을 통해 체결된 6건의 채무재조정 협약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1992년 이후로는 추가적인 채무 재조정이 없어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2.10)	5등급(2021.10)
Moody's	Ba2 (2022.04)	Ba2 (2020.05)
Fitch	BB (2023.07)	BB- (2022.12)

OECD 및 국제신용평가 신용등급은 전년과 동일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브라질에 대한 신용등급은 브라질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대규모 내수시장, 다변화된 산업구조 등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이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Fitch는 브라질 경제의 기대 이상의 강한 성장세와 더불어 새 재정준칙 수립 및 세제개혁 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 7월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단계 높임.
- 한편, Moody's는 브라질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공부채 비율과 경직적인 재정적자 구조로 인해 현재의 등급 및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22년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 가격 상승과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2.9%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헤알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과 더불어 농업 부문의 기대 이상의 호황에 따른 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2.1%의 성장이 예상됨.
-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6%로, 고유가와 경제회복 기조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상쇄되며 전년(-4.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2023년 동 비중은 룰라 행정부의 빈곤층 지원 및 공공투자 증액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8.8%로 전년 대비 대폭 악화될 전망이다.
- 2023년 1월 취임한 룰라 행정부는 경제 재건, 아마존 삼림 복구를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회복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움. 임기 초 여소야대 형국과 전 대통령 지지자의 대선 불복 폭동으로 위기를 맞는 듯하였으나,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 및 정부에 우호적인 상·하원 의장 선출에 힘입어 새 재정준칙 도입, 세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